

# 여름 교복 변화 바람...반바지 '대세'

### “학업 능력 향상 도움”...“광주 생활복 입는 학교 늘어”

#### 소속감 없고 학부모 이중 구매 부담에 반대 여론도

“여름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DJ DOC 'DOC와 춤을')  
 무더운 여름철 학생들이 입는 교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여년 전 가수가 노래했던 것처럼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편한 '일반교복' 대신 반팔과 반바지의 '생활교복'(생활복)을 입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생활복은 체육복과 비슷한 소재의 옷감으로 만들어져 땀 흡수가 잘되고 신축성이 있어 활동에 편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기도 한다.  
 광주경신중은 지난 2014년부터 생활복을 입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 긴 바지나 치마를 입고 등교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생활복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입던 하복은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있다.

김동수 교사는 “청소년기 활동량이 많은 학생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선택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이중 부담과 중복 구매를 피하기 위해 하복을 없앴다”며 “생활복을 입으면서 학생들이 맛을 내려고 교복 치마나 바지를 수선하는 문제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생활복 구매 대신 체육복을 입는 학교도 있다. 동신여고는 지난해부터 여름부터 교내에서 학생들이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들에게 별도의 생활복 구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체육복을 선택한 것이다.  
 학생들의 편의와 교내 학습 분위기를 위해 체육복의 디자인도 새롭게 했다.  
 오현수 교사는 “교복은 신축성이 떨어지고, 1학년 때 구입한 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맞지 않아 불편한 경향도 있다”며 “학생들에게 소

속감을 주고, 신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등·하교시에는 교복을 입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피아여고는 2013년부터 상의를 생활복으로 대체하고 하의는 치마를 그대로 입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흰색이나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해오다가 생활복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생활복을 불편하게 보는 시선도 있다. 교복과 달리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주지 못하고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중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다고 보지만 체육복과 같은 옷을 입고 등·하교 하는 모습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간소화 정책”과 함께 하복 구매 없이 생활복을 도입해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택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다문화가족 양림동 근대유산 탐방 13일 전통문화체험에 나선 광주 남구지역 다문화 가족들이 양림동 광주근대문화유산인 우일선 선교사 사택에서 문화해설사로부터 가족의 역사와 문화적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혜경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도 29일까지 불량 음식점 집중 단속

전남도는 여수 개장백반거리 등의 지역 음식점들에 대한 불만 민원이 많은 것과 관련해 14일부터 29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민원 발생 음식점과 관광지 주변 맛집 위주로 단속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위생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음식물 재사용 등 위생불량이 심각한 돌게장 음식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순천시와 광양시 공무원 등

8명을 4개반으로 편성해 여수 음식점들을 단속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음식점 불만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맛의 고장’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이번에는 계도 보다는 적발 위주로 단속한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접수된 음식점 불만 민원 965건을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은 11.5%로 3위였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여수가 2.9%로 2위였다. /이종해기자 golee@kwangju.co.kr

## 현대삼호重 노사, 사원 아파트 분양 갈등

### 사측 “자구계획안 이행”... 노측 “일방적 결정”

현대삼호중공업이 자구책의 하나로 사원들이 임대료를 내고 살고있는 사원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했다. 이에 노조측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삼호중은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원아파트를 사원들에게 분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아파트 분양 계획은 조지축소, 희망퇴직, 자산매각 등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구계획의 하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분양물량은 사원아파트 3500가구 중 독신자나

원거리 거주자 등을 위한 기숙사용 1200가구를 제외한 2300가구로, 모두 59㎡(24평형)로 분양가는 평당 210만원대로 평균 5100만원 수준이다.  
 회사 측은 “인근 대불산단의 같은 크기 아파트가 70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비싸지 않다”는 입장으로, 사원들에게 최우선 분양하고 남은 경우 일반인에게도 분양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앞서 지난 4월 임직인과 가족, 지역민을 대상으로 분양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원복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사원아파트의 경우 1년에 50만원의 보증금과 전기나 수도 등 생활요금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

의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이날 영암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일방적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회사 측은 그러나 “기숙사용으로 남겨둔 1200가구면 신입사원이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없고 현재 3500가구 중 300가구가 공실로 남아있어 부족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영남=전북기자 jbh@kwangju.co.kr

## 광주지법, 어려운 소송절차 만화로 알기 쉽게~

### 홈피에 웹툰 게시판 개설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광태)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기쉬운 법률만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어렵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알기 쉽게 만화 웹툰으로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란에 '웹툰'을 개설했다.  
 '무등산 호랑이의 법원 알기'라는 제목의 웹툰은 총 6편이 제작됐으며, ▲민사재판 절차의 시작 ▲증거의 제출·신청 ▲가사 광주지법으로 ▲준비기 일출서 ▲변론기일 출석 ▲항소하기 등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소통 매체인 웹툰을 통해 사·도민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절차를 알기쉽게 설명하자는 취지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사법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의 웹툰을 꾸준히 제작,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며 “각종 법원 행사 때도 교육과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사랑이가 꿈꾸는 집, 여러분과 함께 짓고 싶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살던 7식구에게 갑작스럽게 날아든 퇴거 통보**  
 비건조기가 작동되는 창이 없는 컨테이너 박스. 이 곳이 바로 사랑이네 집입니다. 비건조기로 인해 하얀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며 호흡기질환을 달고 살던 사랑이네 가족. 생필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엔 곰팡이와 싸우고 겨울엔 추위와 사투를 벌이지만, 그래도 7남매의 웃음과 행복이 피어났던 집이었습니다.

**사랑이네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엄마, 아빠의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그리고 남 거친 수선만원의 빚, 빚을 갚으려, 아이들을 먹여 살리며 만삭의 몸으로 사랑이 엄마는 아빠와 함께 밤에 나갔습니다. 게다가 선천성 백내장을 가진 사랑이의 3도 화상을 입은 막내 3살 마음이의 치료까지 막막할 뿐입니다.

**외부에 임시로 판넬을 덧대어 틈새 공간을 마련한 사랑이네 집**  
 우리 여덟 가족은 살기 위해, 외삼촌네 집 마당에 임시 판넬로 5명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와 다를 바 없는 판넬 집은 집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콘크리트 바닥과 배추 튀어나온 빨간 벽돌에 3살 마음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동생이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원자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사랑이네 주거신축비 및 생계비로 사용되며, 참여해주신 후원자님에 입주시에 초대합니다. 본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랑이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정신 없는 엄마를 도와줍니다. 고스리 같은 손으로 척척 빨래를 하고, 식사시간이 되면 숟가락, 젓가락을 척척 놓습니다. 사랑이의 별명은 '신사원장'. 6살이지만 마음은 훌쩍 커버린 아이입니다.

◀후원 및 자세한 사항은 코드를 찍어주세요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농협/301-00816148-11

### 오늘의 날씨

해출 05:29    해진 19:48    달출 14:39    달진 01:08

#### 내일 장맛비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덥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23/32	보성	구름많음	22/30
목포	구름많음	22/28	순천	구름많음	23/32
여수	구름많음	23/28	영광	구름많음	22/31
나주	구름많음	22/32	진도	구름많음	22/29
완도	구름많음	22/30	전주	구름많음	22/30
구례	구름많음	22/32	군산	구름많음	21/29
강진	구름많음	22/30	남원	구름많음	22/31
해남	구름많음	22/30	홍산도	구름많음	21/26
장성	구름많음	22/31			

◇ 바다 날씨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면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면바다(동)	서~북서	1.5~2.5	서~북서	1.0~2.0
면바다(서)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매우높음
-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	☁	☀	☀	☀	☁	☀
23/30	23/28	21/29	22/29	21/30	23/29	23/2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문의. Tel. 061-274-0041 / 061-921-4397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68년 동안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생존·보호·발달·권리옹호)를 수행 해 온 국내 최대의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